

기도

1. 눈물을 흘리며 다시 씨를 뿌리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나의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는 언제입니까?
2.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었던 적이 있습니까?

신앙

## 탄원시

시편의 시들은 형식에 따라 여러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등이 있다. 본문인 시편 126편은 탄원시이다. 탄원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탄원시는 시편에서 가장 큰 범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 구역 공과

2023년 5월 21일

다시 씨를 뿌리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다시 씨를 뿌리자

시편 126편 1-6절 (찬28장, 496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을 통해 구원의 날을 떠올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로 다시 씨를 뿌리면, 메마른 남방 시내가 비를 통해 넘치는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 첫 번째로는, 꿈 꾸는 것 같았다는 말씀입니다(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꿈 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1-2절a). 그리고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찬양합니다(3절).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날로써 **첫째,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아래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어 연단시키셨고 아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애굽을 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굽 아래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 약 400년 만에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를 통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무시했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언약하신 대로 70년 만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저주 받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과 포로 귀환을 위해 스스로 힘쓴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꿈 꾸는 것 같았다’고 기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은혜를 항상 깨달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는, 다시 씨를 뿌리라는 말씀입니다(4-6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땅은 모든 건물들이 무너진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야 했으며, 이방 민족의 방해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4절). 평소에 메마른 남방 시내가 비가 올 때 넘치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충만한 은혜로 기뻐할 때가 있는 반면에,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5절).**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말씀과 믿음, 기도의 씨앗을 다시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6절).

## 맺 음 말

그러므로 다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 꾸는 것 같았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공로 없이 전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은혜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험으로 인한 눈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에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과 믿음,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